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삼위일체                      제목 : 교리와 스토리                      성경:  
누가복음 23장 39-43절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39-43)

기독교에는 교리와 스토리가 있다. ‘리’자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과 영어를 섞어 사용하였을 뿐이다. (교리와 이야기가 있다, 또는 독트린(doctrine)과 스토리(story)가 있다.)

스토리가 먼저고 교리가 나중이다. 그러니 스토리가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리란 원리나 원칙이기 이전에 스토리다. 스토리에 들어있는 동일한 패턴들을 정리한 것이 교리이다. 그래서 교리에 ‘원리적 기능’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교리에 맞도록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교리에 맞지 않는 스토리가 전개되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예의 주시하게 된다.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노아’라는 영화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호소력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궁금해서 본다고 한다.

일단은 성경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기를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매트릭스나 반지의 제왕 등도 모두 그 모티브가 성경이다. 사실 대부분의 판타지 게임들에도 그 구조는 성경에 들어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실로 성경 전체는 영원한 감동의 스토리라 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유익한 책이 아닐 수 없으며,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란 그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빠대라 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의 모임이다. 이들 교리들은 서로가 잘 엮여 있으며, 합리적이며 조직적이며 우아하며 아름답다. 실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스토리보다 먼저는 아니다. 교리는 스토리를 돕는자이지, 스토리를 감독하는 자가 아니다. 물론 교리에서 벗어나는 스토리를 스스로 창작했다고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교리를 아는 자가 스토리를 난도질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하라는 뜻이다.

오늘 본문말씀의 스토리는 매우 감동적이나 교리의 입장에서는 머뭇거리진다. 과연 이 회개한 강도는 단 한마디의 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낙원이란 아직은 천국이 아닌가? 그는 회개는 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예수를 믿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오늘’ 이라는 단어는 너무 성급한 용법인 것 같지 않는가? 보통 성도들은 심지어는 몇십년까지도 광야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운 좋게 예수님과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그날 믿고 그날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튼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구절이다.

교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가 한명 더 있다.

바로 예수님 곁에서 비아냥거리며 비방했던 친구다.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방하는 주제에 살고는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살고 싶은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다. 그는 둘 다 놓치는 말을 하고 있다. 그가 교리를 약간은 알고 있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말이고, 네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걸 보니 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비방이 담겨져 있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바로 이런 사용이 교리의 악한 사용이다. 교리로 상대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한다.

이런 것들은 마귀의 도구들이지 하나님의 도구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독, 비난, 비판, 심판, 정죄, 비아냥, 원망,’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마귀의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르다. 그들은 ‘칭찬, 위로, 감사, 동정, 격려, 축복, 신뢰, 변호, 보호, 반성, 회개, 소망, 갈망, 요청, 대신감당’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죽는 순간만큼은 마귀의 도구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도 한때는 마귀의 도구들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형장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죽는 그 순간 진실함과 선을 선택하였다.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변호 하였다. 그는 마땅한 형벌을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그 결과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

워하였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회개하였고, 예수님에게 진실하였고, 예수님에게 동정하였다.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 그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는 말에는 참으로 깊이 있는 뜻이 담겨져 있다.

-당시 예수님은 사방에 적들로 가득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도망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그 고통에 동참하셨고 성령님은 선을 택한 강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강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으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깨달았다.

-그는 감히 내가 믿겠으니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은 고통 중에 구원의 희열을 맛볼 수 있었다. 한사람의 회개가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이 장면을 바로 가까이에서 목격한 로마 중대장이 구원을 받았다.

-온통 100% 사탄의 즐거들로 가득한 갈릴리 언덕에서 방금전까지만 해도 사탄의 앞잡이였던 자들, 그러나 진실하고 겸손한 죄인 두명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택에서 승리한 강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낙원(paradis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다는 교리를 만들려고 사용하신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처참한 지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강도를 위로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네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 오늘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고통과 죽음을 이기라는 뜻이다. 그러니 굳이 천국과 낙원에 대한 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다만,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의 문은 분명히 열린다.

신자는 분명히 구원은 얻는다. 그러나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는 자는 성도들이다. 그들은 다른 구원얻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고 주의 종들의 사역에 동참하여 협력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다.

그러기 원하는 자들은 죽는 순간 믿는 것을 원치 말아야 한다. 그나마 엄청난 다행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찬양예배>

주제: 성령    제목: 비둘기같은 성령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2절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3:16)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막1:10)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1:32)

### <상황 설명>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이는 예수님의 데뷔의식.

세례를 받으심은 죄인의 대표로 오셨음을 나타내심.

죄인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 죄를 감당하는 자로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비로소 속죄의 숙명을 시작하신 셈.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세례를 통해서 특별한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는 회개가 가능한 자, 은총을 거부하지 않는 자로 분류됨.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

어떤 자들은 눈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볼 수 있는 자들도 있다.

어떤 자들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다.

한국교회가 이런 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꾸 마귀의 속이는 영상과 속이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보는자, 듣는자, 대언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가능한 자가 진짜 선지자요 예언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깨끗함의 상징.

온순함의 상징.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쉽다.

성령님은 마치 비둘기 같다.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은 평상히 삶의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의 같아야 하며, 심지어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한다.

인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격이란 변하지 않는 어떤 기질이 아니다. 기질이란 길들여진 습관이다.

인격이란, 페르조나, 말 그대로 가면이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바꿔 쓰는 가면이 인격이다.

이중인격자란 말은 병적으로 자신이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그냥 병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사중 오중 인격 가면도 사용하면 살아간다. 그리고 1초 간격으로 바뀔 수 있다. 여자들이 특히 잘 한다.

악령은 마치 까마귀같다. 그는 먹이를 호트러뜨려서 먹는다.

훼방꾼.



보통은 비둘기처럼 살아간다.

물론 까마귀처럼 행동하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나 그가 회개할 수 있다면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비둘기처럼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자!